땅[石]으로부터 읽어낸 시간

마포문화 비축기지

허서구
원도시건축 대표

RoA건축사사무소

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산53-1일대
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136,712m²
건축면적	5,600m²
연면적	8,100m²
규모	지상 2층, 지하 3층
높이	15m
건폐율	6.05%
용적률	6.03%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구조설계	㈜센구조연구소
설계	허서구, RoA건축사사무소(백상진, 김경도, 이일성)
설계담당	김봉수, 김인섭, 김태형, 김형순, 박우진, 박정현, 백상미, 조윤정, 홍찬기
시공	㈜택시빌, ㈜SG신성건설
기계설비	영동설비기술사사무소
전기설비	해월엔지니어링
설계기간	2014.10.~2015.8.
시공기간	2015.12.~2017.8.
공사비	287억 원
건축주	서울특별시



상공에서 바라본 마포문화비축기지



4번 탱크 내부

공온 뮤이



전등을 포함한 일체의
설비들도 탱크 자체에
부착되지 않는다.
원형에 대한 존중이며
시설 사용에 대한 지침이다.
깜깜하게 비워진
체적 안으로 가늘어 눈부신
빛줄기들이 뚫고 들어온다.
세장한 파이프 기둥들의
숲이 공간을 채운다.
공간은 스스로를 전시하고 있다.



ⓒ박서원



ⓒ남궁선



ⓒ박서원

상·좌 **1번 탱크 내부**
상·우 **2번 탱크**
하 **4번 탱크**

©박서원



5번 탱크

이끼가 돋아 있고 오동나무 거목이 뚫고 나와 공생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녹슬어 가는 탱크와 주변 시설물. 시간은 인간이 만든 모든 인공물들을 자연으로 동화시킨다.



김용남ⓒ

6번 탱크 전경

장소

하나의 장소, 하나의 공간이 시대와 사건을 연결한다. 40년, 그리 길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는 나름 가볍지 않은 시대의 사건들과 이야기로 연결된다.

1973년 중동전쟁으로부터 야기된 1차 오일쇼크는 세계경제를 강타하였다. 3개월 만에 원유 가격이 3배로 폭등하였다. 이로 인해 매봉산 남측사면에 암반을 굴착하여 석유비축기지를 건설하였다. 이곳에 40만 배럴의 유류를 비축하였다.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1급 보안시설로서 철망과 초소들로 경계가 이루어졌다. 이후 2002년 한일월드컵 상암경기장이 바로 앞에 건설되었다. 위험물 저장시설이 되어 버린 석유비축기지는 안전을 이유로 폐쇄되었다. 고유의 기능을 잃고 2014년까지 버스주차장과 월드컵대교 현장사무실 등으로 점유되어 오다 2017년 '문화비축기지'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거듭났다.

협의

장소와 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을 두고 집단지성의 힘이 발현되었다. 논의와 담론을 통하여 나아갈 방향이 순기능으로 결정된, 많지 않은 사례 중 하나이다. 2014년 마포 석유비축기지의 재생 및 공원화 사업을 위한 국제설계경기가 이루어졌다. 'CREATING A CULTURAL DEPOT FROM AN OIL TANK-석유비축기지로부터 문화비축기지 만들기'. 장소에 대한 네이밍(naming)을 위하여 오랜 협의가 있었지만, 문화비축기지라는 명칭은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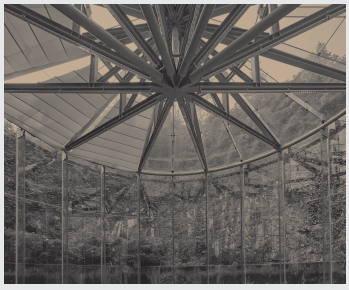
유류 비축량 약40만 배럴, 5개의 오일 탱크들을 통해 그 물리적 체적이 가늠된다. 그 당시 서울시민이 한 달간 사용할 비축량이었다. 현재 나라 전체의 하루 소모량이 300만 배럴가량에 이른다니 격세지감이 든다. 이 정도의 비축량이 그토록 소중해서 꼭꼭 숨겨 놓았던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대 상황. 장소를 통해 앞 세대의 생각들을 경청한다. 장소가 생겨나고 존재해 왔던 그 이야기를 공감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진정성이라 이해한다. 기억들이 기록들로 각화(刻畵)된 계획대지. 내재된 수많은 시어(詩語)들을 찾아내고 읽어내어 재조합한다. 우리 시대의 나지막한 웅변으로 서사시킨다.



상공에서 바라본 마포문화비축기지



ⓒ조승현



ⓒ박세원

상 **해체 중인 1번 탱크**
하 **1번 탱크 내부**

낯설다

이끼가 돋아 있고 오동나무 거목이 뚫고 나와 공생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녹슬어 가는 탱크와 주변 시설물. 시간은 인간이 만든 모든 인공물들을 자연으로 동화시킨다. 높은 옹벽과 좁은 통로, 깊은 틈새와 구덩이. 단면에서도 느껴지는 구조물의 중량감과 그 물성들의 거칢. 낯설다는 것, 익숙하지 않은 새로움을 뜻한다.

반전

사연이 있었기에 수긍이 가고, 감춰져 있던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니 뜻밖이다. 관심 없던 것이 불쑥 인사를 하니 눈길도 간다. 서울시민 대다수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나다니면서도 관심 없던 곳. 구덩이 속에 용도 폐기된 채 산화되고 풍화되어 가던 오일 탱크가 문화시설로, 저장 기능에서 생성 기능으로, 단순 구조물이 복합 건축물로 전환되는 과정. 감동은 예측하지 못할 반전과 격한 공감의 동반을 필수요건으로 한다. 크게 터지는 웃음과 반응 과정이 동일하다.

발굴

장소가 만들어지던 그 시대 그 상황을 재현해 낸다. 장비와 인력들을 소환해 내어 현재의 기술과 인력들이 오버랩되는 상상을 한다. 문화비축기지 구축 과정은 발굴 과정이 필연적으로 동반된다. 묻혀 있던 구축 과정의 발굴을 통해 새로이 들어서야 할 계획의 방향이 정당화된다. 찾아냄이 시작이며 나타나게 함이 종결이다.

문화비축기지 구축 과정은 석유비축기지 구축 과정의 역순으로 진행되었다. 다시 메워진 차폐 지형을 걷어내고 작업로의 암반 지형을 노출시켰다. 전면의 차폐옹벽 개폐 및 변형 여부를 결정하고, 오일 탱크 각각에 대한 활용 방법과 존치 형식을 결정하였다. 오일 탱크 보호옹벽의 활용 방식을 결정하였다. 옹벽 후면의 암벽 보강과 정리 후에 진입로 암벽을 최종 마무리하였다.

시설계획의 핵심요소: 암반절개지, 콘크리트 옹벽, 오일 탱크

이들은 문화비축기지 시설계획의 핵심 요소인 동시에 완성요소다. 각각의 오일 탱크들이 세 가지 핵심 요소들의 조합과 프로그램을 수용하면서 별도의 수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토사를 걷어 낸 암반절개지의 순수형상은 시설계획의 출발점이었다. 영역을 한정하고 시설물의 배경이 된다. 경계인 동시에 풍경이 된다.

콘크리트 옹벽은 탱크 외주부를 보호하고 전면 차폐벽과 결합된다. 스스로 조형물이 되면서 안과 밖을 가르는 영역이 된다. 하나의 독립 용기로 존재하면서 다양한 공간 개념으로 추상화 된다.

오일 탱크 사용에 있어 탱크 자체를 보강하거나 구조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공통 원칙으로 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식되어 가는 것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계획단지 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후성 강판(코르텐) 등이 사용되지 않았다. 산화 과정을 모방하지 않았다.

하나의 몸짓들

각각의 탱크에 표현되는 디자인 몸짓은 선명하고 절제된, 단 하나씩이길 원하였다.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명확하길 원하였다. 탱크들이 주고받은 서로의 말들이 함께 어우러져 이 장소가 들려주는 어떤 스토리가 구성되길 바랐다. 불요한 디자인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였다. 최소한의 건축적 개입을 통하여 원형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드러나게 하였다. 몇 번 탱크가 제일 애착이 가는가 하는 질문. 중요한 것은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라고 답하였다. 독창 경연이 아니라 합창. 하나라도 빠지면 뭔가 허전하다.

1번 탱크는 이동되어 6번 탱크의 내부탱크가 되며 같은 크기의 유리 탱크로 치환된다.
2번 탱크는 이동되어 6번 탱크의 외부탱크가 되며 바닥판이 결합되어 공연장을 구성한다.
3번 탱크는 원형 그대로 존치한다. 침묵은 또 다른 웅변이다.
4번 탱크는 탱크의 내부공간을 사용한다. 기획전시장이 된다.
5번 탱크는 탱크의 바깥공간을 사용한다. 상설전시장이 된다.
6번 탱크는 1·2번 탱크가 겹쳐진 공간이다. 탱크 안의 탱크, 그 관계가 건축화된다.

탱크 이야기

TANK #1 | 기존 탱크는 6번 탱크 원형 회의장 내부로 이동한다. 탱크가 있던 자리에 같은 크기의 유리 탱크로 치환된다. 암반절개지의 순수형상을 공간으로 받아들인다. 기둥 없이 캔틸레버 철골구조가 유리지붕을 지탱한다. 터널 형식의 접근을 제안하며 안쪽으로 높아지고 넓어지는 경사벽과 경사지붕이 제안된다. 주변의 경사지형에


ⓒ남은서


ⓒ박세원

상 **2번 탱크**
하 **4번 탱크**





5번 탱크

대응된다. 유리 탱크로 들어서면 절개지형의 암벽형상이 하늘천장 밑으로 펼쳐진다. 달빛 휘영청한 밤 실내의 모든 불빛이 꺼지는 날, 비 오는 날, 눈 내리는 날, 특별한 날들을 기대한다.

TANK #2 | 기존 탱크는 6번 탱크의 외형으로 이동된다. 진입로로부터 서서히 경사져 오르는 통합바닥판이 결합되어 상부 야외공연장과 하부 실내공연장을 구성한다. 전면의 차폐옹벽은 무대시설의 주요 구성요소가 된다. 비어 있는 모습으로도 충분히 채워져 있고 채워져 있어도 비좁지 않은 장소. 비가 오고 눈이 내려도, 누군가 홀로 서 있어도 그대로 공연장이다. 하나의 몸짓, 바닥판 하나 설치하였을 뿐이다. 없애기도 힘든 칡. 잘 관리하는 편이 오히려 연출이다. 칡도 단풍이 들며, 팔월이면 나비 모양의 꽃들이 붉은 자줏빛으로 만개한다.

TANK #3 | 원형 그대로 존치한다. 철제 부속물들이 주변에 녹슬어 가는 현재 모습 그대로 존치시킨다. 관람자 동선을 유도하지 않으며 다가서지 않으려 한다. 섬처럼 격리시킨다. 내버려 둠으로써 나머지 탱크영역들의 프로그램 밀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된다. 미래를 위한 유보영역으로서 자연으로의 동화 과정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TANK #4 | 기획전시장으로 탱크의 내부공간을 사용한다. 탱크 사용의 절대원칙은 탱크 자체를 보강하거나 구조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전등을 포함한 일체의 설비들도 탱크 자체에 부착되지 않는다. 원형에 대한 존중이며 시설 사용에 대한 지침이다. 깜깜하게 비워진 체적 안으로 가늘어 눈부신 빛줄기들이 뚫고 들어온다. 세장한 파이프 기둥들의 숲이 공간을 채운다. 공간은 스스로를 전시하고 있다. 어지간한 작품이 아니면 이 공간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한다. 역량 있는 작가들에겐 기회의 공간이며 탱크는 그들을 기다린다.

TANK #5 | 상설전시장으로 탱크의 외부공간을 사용한다. 탱크 내부는 영상실이며 외부공간으로서 중정 역할을 한다. 아래층 레벨에서 접근이 된다. 전시영역은 2층에서 이루어지며 탱크와 옹벽 암반지형을 넘나들며 실내외 공간을 회유하는 산책로가 된다. 외부공간이 내부가 되고 내부공간이 외부가 되는 인식의 옷을 뒤집어 입는다.

TANK #6 | 1·2번 탱크로부터 해체된 2개의 탱크는 이곳으로 옮겨와 공간 구축에 내재되는 함의로 존재한다. 해체 형식과 재조립 형식은 기존 탱크시설의 구축질서를 반영한다. 외부옹벽, 외틀옹벽, 안틀옹벽 3개의 원을 그리며 결합된다. 2번 탱크는 외틀옹벽의 외장재로 덮이며 1번 탱크는 안틀옹벽의 내장재로 삽입된다. 기지 내 지원시설 기능들이 이곳에 배치됨으로써 기존 탱크들의 공간 기능을 보다 선명하게 작동시킬 수 있게 된다. 조금 다른 느낌의 공간, 무언가 익숙하지 않은 느낌의 공간. 이곳은 탱크 속이다.


ⓒ남궁선


ⓒ허서구

6번 탱크

조경

꽃나무를 심어 풍경을 만든다면, 한겨울 풍경이 을씨년스럽다면, 비판의 기준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장소가 가진 특성상 이곳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주차장부지 계획은 설계경기를 통해서 결정된 계획안이 아니다 보니 저마다의 분분한 의견들이 체계 없이 난무하면서 통제력이 약화된다. 시간을 보내면 점차 보완될 것인지 오히려 더 어수선해질지, 혹시나 전자 쪽 확률을 기대해 본다.

안타까움

내년이면 문화비축기지와 상암월드컵경기장 사이에 지하차도 건설이 시작된다. 기능상 꼭 필요한지 의구심이 들고, 도시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문화비축기지는 오픈하자마자 앞으로 몇 년 동안 또다시 먼지 속에 출입이 방해된다. 문화비축기지는 미래를 위한 유보지 성격이다. 국가자산에 대한 잠재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연유로 하여 월드컵경기장역으로부터의 적극적 연계 방식의 준비가 더더욱 필요해졌다. 이미 주변 산책로들과 연결되어 있고 굳이 주출입구가 위계될 이유가 없는 땅이다.

뒷이야기

문화비축기지를 홍보함에 있어 참조될 해외의 사례들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있을 수도 없고 있을 리도 없다고 잘라 말한다. 원래의 바탕이 유일한 것이기에 풀어 놓은 해법도 유일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한다. 외국 사례에 비유되어 폄하되길 스스로 자처하느냐고 반문한다.